

# 민간 상업출판의 효시 '방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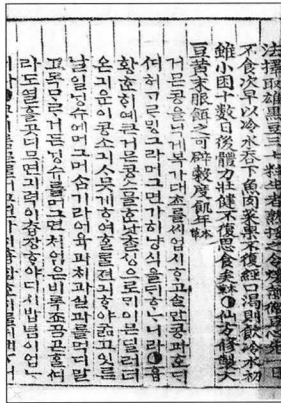
서울·전주·안성 등지서 17세기 이후 성행... 독서대중화에 기여

“수표교(水標橋) 아래 북쪽 이문(里門) 입구에 있는 하한수(河漢水)집에서 출판한 책이니 사고 싶은 사람은 찾아 오시오.”

1576년(선조 9)에 간행된 《고사촬요(故事撮要)》란 책의 간기(刊記: 요즘의 판권란에 해당)에 적혀 있는 말이다. 이 책은 원래 1554년(명종 9) 어숙권(魚叔權)이 편찬한 일종의 백과사전(19회 참조)인데, 세조 때 만든 금속활자(을해자)로 1568년에 찍은 원본을 토대로 하한수란 사람이 다시 목판 인쇄로 출판한 것이다.

이 간기는 몇가지 새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나라에서 간행했던 책을 개인이 다시 출판했다는 것이 그 하나요, 판매를 위해 장삿속으로 출판했다는 것이 그 둘이며, 사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찾아오게 했다는 것이 그 셋이다. 그러니까 하한수의 집은 곧 출판사이자 서점을 겸했던 셈이다.

이를 다시 출판문화사적으로 풀어보면, 적어도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 후기에 민간에 의한 상업출판이 서울에서 태동하고 있었으며, 종래에는 국가의 공식 출판기관인 교서관(校書館)에서 발행되어 소수의 중앙관료나 양반층에 독점적으로 배포되던 책을 비로소 상품화·대중화하는 단초를 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이미 16세기 중반인 중종~명종시대에 교서관 발행의 책을 실수요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서사(書肆: 서점)의 설치문제가 끈질기게 논의됐던 시대적 분위기에 편승했음이 분



민간에서 목판본으로 발행된 군담소설 《조웅전》(안성판·왼쪽)과 농업서적인 《구황촬요》(1686·태인판).

명하다.

어쨌든 이러한 자생적인 민간상업출판의 움직임은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주춤했다가 17세기 중기 이후 발해지와 발행소를 명기한 상업출판물, 곧 방각본(坊刻本)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19세기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판(京板)과 전주를 중심으로 한 완판(完板)을 비롯, 경기도 안성과 전라도 태인·나주 등지에서 전성기를 보이게 된다.

방각본은 천자문·동몽선습·명심보감 등 청소년 학습교재류와 사서삼경·고문진보·통감절요 등 과거수험서, 그리고 사례판람·농가집성 등 서민층의 관혼상제나 농업관계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실용서적들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민간출판의 성행은 조선후기에 들어오면서 정권에서 유리된 양반층이 증가하고 서민문화가 팽창함에 따라 책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음을 말해주는데,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여성독자층을 겨냥한 한글소설, 곧 이야기책의 출판이 자못 활기를

띠게 된다.

한글소설은 처음에는 실세한 양반이나 중인들에 의해 필사본 형태로 유통되어 주로 부녀자층에서 읽히다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방각본(목판본)으로 출판되어 일시에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글소설의 인기품목은 구운몽·사씨남정기·심청전·홍부전·장화홍련전·숙영낭자전·숙향전 등의 가정·애정소설, 임진록·유충렬전·임장군전·조웅전 등의 군담소설, 삼국지·수호지·서유기 등 중국소설이었다.

이들 방각본은 갑오경장(1894) 이후 납활자에 의한 신식출판이 차츰 성행하고 이른바 활자본 신소설(新小說)이 유행한 뒤에도 1910년대까지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결국 방각본의 출현은 우리 출판문화사상 상업출판의 남상(濫觴)이요, 방각본 업자는 한 시대 출판문화의 담당자로 일정한 소임을 다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끝>

※ 고침 = 지난 20회 기사중 《쇄미록(瑣尾錄)》과 《충재일기(沖齋日記)》의 한자표기를 바로잡습니다.

# 출판저널

통권 제226호 / 1997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마정미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규정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대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여넣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를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표지디자인?

디자인 예원이 있습니다  
 T.5448-5420,  
 F.3444-1515



표지디자인, 광고디자인, 정기 간행물 등  
 출판과 관계된 모든 작업  
 ... 디자인 예원

### GOOD DESIGN GOOD PARTNER

소박한 심정에, 소신껏

표지디자인



표지에 관한 스트레스 —  
 이제는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전화부터 주시면 대행관계자료를  
 팩스로 보내 드립니다.

**양무리**  
 출판미술의 모든 것

TEL 267-0396, 272-8097

### BLANK BOXES · ILLUSTRATION BANK

빈 칸 만들기

ILLUSTRATION  
 CARTOON  
 PHOTOGRAPH  
 PUBLISH TOTAL DESIGN  
 FINE ART WORK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66-56 대동 B/D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휴대폰 011-769-4350

#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  
 40,000원  
 \* 반년분(11호)  
 22,000원